

기 고

중동의 드론 전쟁,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양 욱

연구위원

2026-03-17

최근 이란의 보복 공격은 현대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수치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도합 2000기 이상의 드론과 1000발 넘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값싼 드론을 대량으로 먼저 밀어 넣고, 뒤이어 미사일로 타격하는 '섞어 쓰기'가 전장을 바꾸고 있다. 이 장면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을 때 우리 군은 헬기와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값싸고 작은 드론이 수도권 상공을 유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방공 체계의 취약성이 확인된다.

정찰 보조 수단이던 드론은 이제는 핵심 타격 수단이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란계 자폭 드론을 역설계한 루카스 드론을 실전 투입했다. 가격은 저렴해도 전략적 효과는 큰 드론은 이미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군도 역시 드론 전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급한 것은 대(對)드론 방어 체계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비싼 요격 미사일을 반복 사용하는 구조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방어하는 쪽에 불리한 구조다. 중동에서 벌어진 이번 드론 공격도 이런 '가성비'를 활용한 소모전의 전형이었다. 북한 역시 이런 드론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지는 북한에게 드론은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기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자폭 드론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더해 드론까지 결합한 '섞어 쓰기' 전술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존 미사일 중심 방공 체계는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해 저비용·고효율의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레이저 요격 체계 '아이언 빔'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참고해 다층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격용 드론 전력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과 장거리 자폭 드론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군이 보유한 드론은 약 120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약 1만2000대, 중국의 약 5000대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게다가 상당수가 정찰용이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공격용 드론, 특히 자폭 드론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기되는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의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군 조직 효율화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드론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총괄 전담 조직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바뀌어 왔다. 기관총이 전술을 바꿨고, 전차와 항공기가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 지금의 게임 체인저는 드론이다. 드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대드론 방어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공격용 드론 전력을 대

폭 확대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전략과 조직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 준비하지 않는 군대는 다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본 글은 3월 17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